



순창 팔덕파출소, 강천산 교통안전활동 강화

순창경찰서(서장 김종신) 팔덕파출소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강천산근로공단길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팔덕파출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강천산을 찾는 탐방객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말에는 예년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강천산 진 출입로에 차량정체나 도로변 주.정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주차장 확장공사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 용담면 직원, 고령농업인 일손돕기 '구슬땀'

진안군 용담면(면장 유재준)은 지난 15일 고령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평2마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직원들은 농가를 찾아 함께 메밀수확을 하며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이했지만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농가를 찾아 도움을 줬다.

유재준 면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농가에 힘이 되는 것 같아 기쁘다"며 "10월 말까지 용담면 자체적으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발굴해 매주 일손돕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군 선수단 초청 격려

전춘성 진안군수 지난 15일 군수실에서 20일부터 열리는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진안군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했다.

오는 20~25일에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진안군 대표로 8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종목은 배드민턴, 수영, 육상트랙, 축구, 파크골프 총 5종목이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된 훈련하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빛나는 대회가 되시길 바란다"며 "진안군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군 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애쓰신 몸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경기에 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창립 60주년 기념 이웃사랑 실천

농협진안군지부, 사랑의 농산물꾸러미 나눔

농협진안군지부(지부장 정미경)는 18일 농협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사회 공헌 전개를 위해 사랑의 농산물꾸러미 100상자(500만원 상당)를 3곳(반월노인사랑의 집, 진안군노인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날 나눔 행사에는 정미경 지부장 황정순 지점장 복지단체장이 참석했고, 전달된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는 복지단체를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는 1상자당 5만원 상당으로 사

과, 감자, 고구마 등의 농산물과 즉석밥, 곰탕과 같은 가공식품으로 구성돼 있다. 정미경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소외 계층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동환 반월노인사랑의집 원장은 "농협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리고, 사랑의 꾸러미에 담긴 정성을 소외된 계층에 나누면서 우리농산물에 용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학교 4H 회원, 마이산 자연보호 활동

진안군 학교4H 회원 70명은 지난 18일 마이산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들은 자연보호 활동 시작 전에 마이산 북부주차장에 모여 4H서약, 실천이념 등 4H의식을 통한 소속감을 높였고, 마이산 관광안내소 ~ 명인명품관 구간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다.

학교 4H회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지·덕·노·체의 4H이념을 배우고, 농심 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으로 진안군에는 5개교(마령교, 진안중, 진안여중, 동향중, 진성중) 18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전신 화상 응급환자 닥터헬기 이송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8일 단독 주택에서 쓰레기 소각 중 전신화상을 입은 90대(여) 환자를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8일 07시 30분경 남원시 보절면 단독주택에서 이공아에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난 것으로,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50%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 후 대전 화병원을 이송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 9월 국내 최초로 도입, 응급환자를 골든타입에 후송할 수 있어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농촌기반 코호트노화 본조사 사업 참여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지난 18일부터 남원지역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연구 본조사(2년차)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전국 6개 농촌지역에서 2004년부터 기반조사를 시작, 한양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해 기 구축된 농촌기반 코호트 인프라를 활용해 노화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여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身食食마음心' 작은 음악회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과장 정명자)는 18일 센터 내에 있는 치유정원에서 '신身食食마음心'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치유정원의 풍경을 배경 삼아 사랑에(愛)함터 대상자 및 가족 70여 명이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치러졌다.

사랑에(愛)함터 참여 어르신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가꾸신 식물들을 활용해 차를 만들고, 마음을 울리는 악기 연주와 감상함으로써 치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모두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쉽게 어르신들의 가족들도 함께하여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 역시 심신의 힐링 시간을 가졌다. '치유 농업 프로그램'은 자연환경의 치유적 요소를 활용

해 심신의 안정과 신체활력을 증진해 치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색소폰 연주와 함께 치매 예방 체조, ▲도시락에 다과 담아 짝꿍에게 선물, ▲허브식물 활용한 차 만들기, ▲낙엽을 활용한 엽서 쓰기, ▲웃음치료 프로그램 등이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에 대한 궁금증은 김제시 치매안심센터(☎540-1327)로 문의할 수 있으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연중무휴로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제=곽도희 기자

남원중앙지구대, 유관기관 협업 보이스포시 예방 나서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는 18일 어르신 상대 보이스포시 예방을 위해 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과 합동으로 예방활동을 나섰다.

이번 활동은 최근 전화를 이용한 대출전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보이스포시 피해가 발생에 따른 것으로, 관내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설시장 등을 찾아 보이스포시 예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영업장에서는 내방고객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용현 조합장은 "농촌 어르신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보이스포시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남원경찰서와 더불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